

2021 새해 새 설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방역·재난 대응체제 강화 역량 집중”

코로나19 심리 방역에도 만전
청년·여성·신중년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새로운 비전 선도



“올해는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의 새기치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은 17일 “2021년 핵심 구정 방향은 코로나 방역과 재난 대응체제 강화와 더불어 청년·여성·신중년 등 계층별 차별화된 구현, 마을민주주의 강화, 그린뉴딜도시 조성, 도심 속 스마트 녹색쉼터 조성, 포용적 복지 안전망 강화, 치매안심도시 모델 전국 선도, 배움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해 두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올해 신설한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코로나 심리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지난해와 같은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관 모든 분야에서 청년·여성·신중년 등 계층별로 차별화된 일자리를 창출,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4차 산업에 적합한 IT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으로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각 통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계획과 특화사업으로 통합 돌봄의 새로운 비전을 선도해 갈 것을 강조했다.

서 청장은 “지역복지의 구심체인 종합사회복

지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을 대표하는 치매안심도시 모델 선도를 위해 치매안심대학 운영, 특화된 치매예방 전문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치매관리에 중점을 두고 치매전문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매안심 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서 청장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포함한 구민 모두가 치매와의 동행이 실현될 수 있는 전국을 대표하는 치매안심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는 그린뉴딜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서구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비, 연차별 기후변화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올해 쌍촌동 등 447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LED조명기기를 보급

하는 등 그린뉴딜사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호 2동은 청정관리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창동과 풍암동 일대에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또 재활용품 선별 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신속하고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클린하우스 운영,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설치, 동네 자원순환 관리사 지정으로 생활밀착형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서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에 지역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마을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을 중심의 주민총회 활성화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총회에서 도출된 의제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작은 정부인 동(洞)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동 정부 모델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현재 지역 내에서 진행중인 대형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영주차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올 9월 설립할 계획이며 상무지구 일원 85만㎡ 부지에 사업 추진이 확정된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광주 전통생활음역당 조성사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대형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완공에 박차를 가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서 청장은 “2021년은 서구가 가야 할 길에 걸이 생각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구민의 행복과 삶, 희망찬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19 관련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대상은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의료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총 115 곳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광산구 식품위생 정책 전국 롤모델 됐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전국 1위
정순덕 식품위생 팀장 장관상



광산구의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발빠르게 ‘안심식당’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광주 광산구의 식품위생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안심식당’ 지정 운영 등 선제적 대응으로 골목상권 회생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0년도 전국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전국 2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자치구 6곳이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광주 지역 자치구 중에선 광산구가 유일하게 포함된 영광 기관 우수표창을 받았다.

광산구는 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도 안심식당 운영 평가’에서도 전국 지자체 가운데 2위의 성적을 냈다. 광산구는 연이은 우수 기관 표창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의 식품위생 정책을 펼치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상시 비치, 영업장 매일 5가지 소독 등을 일상화 하도록 한 ‘안심식당 서약업체’ 지정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광산구의 식품위생 정책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국무총리가 주관한 중대본 회의에서 모범 사례로까지 소개됐으며,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광산구는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정순덕(사진) 식품위생 팀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올해 예산 26억원 들여 도시숲 25곳 조성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광주시는 “올해 예산 26억원을 들여 도시숲 25곳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2021년 도시숲 조성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조사 후 제출한 사업 대상지 39곳 중 25곳을 선정했다.

도시숲 조성 대상지는 ▲충장동행정복지센터 등 녹지환경늘리기사업 15곳 ▲금호시영1단지 아파트 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2곳 ▲월곡지구 보행자 전용도로(월곡동 681-9번지) 등 녹도조성사업 2곳 ▲서광주로(금호저수지-서광주

역) 가로숲길 조성사업 1곳 ▲대동고교 등 학교 내 미래숲(명상숲) 조성사업 5곳 등이다.

선정위원회는 도시림 조성·관리 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시민단체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대상지별 녹화사업 효과성·사업규모의 적정성·사후관리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앞으로 각 자치구는 대상지별 현장조사와 설계준비 등을 거쳐 도시숲을 조성하게 된다.

광주시는 또 도시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도심 내 자투리공간 녹지환경 늘리기, 열린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보행자도로 녹지공간 조성,

주요 도로변 가로숲길 조성, 학교 숲 조성 등을 진행한다.

시는 특히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4년차를 맞은 올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재욱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휴식하고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숲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정도평가능력 ‘우수’

법정감염병 외부 정도평가 ‘적합’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한 법정감염병 외부 정도평가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감염병분야 진단검사 능력이 우수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법정감염병 외부 정도평가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민간병원 등 감염병 검사기관의 코로나19, 에이즈(AIDS), A형간염 등 국가에서 정한 1급부터 4급 법정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 능력의 정확도와 신뢰

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감염병 검사항목은 48종으로,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35개 병원체에 대한 정도평가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박종진 감염병조사과장은 “감염병 관리는 검사능력을 갖춘 실험자의 신속·정확한 진단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법정감염병 87종 중 기술이 전이 안된 나머지 39종에 대해서도 감염병 진단 검사능력을 최단기간 내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작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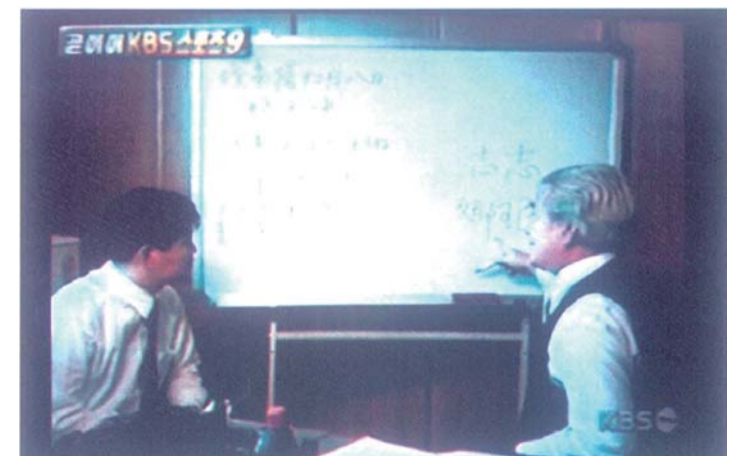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